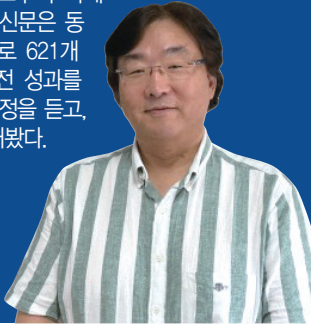


연구는 특허가 되고, 특허는 로열티가 돼 다시 연구로 돌아온다. 지난해 우리학교 기술이전 수입료 56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억 원이 컴퓨터공학과 박광훈(공학) 교수의 국제 영상 표준특허에서 발생했다. 우리신문은 동 영상 코덱 국제표준특허를 바탕으로 621개의 국제특허와 1,126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둔 박 교수로부터 기술이전의 과정을 듣고, 우리학교 산학협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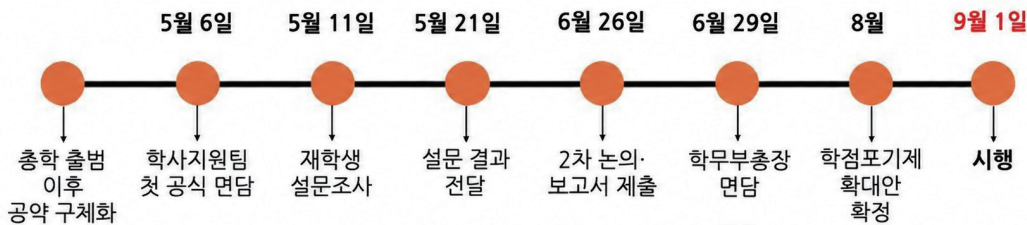


국제캠 해정박물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고지도 교육프로그램이 열렸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이 전시 관람부터 대동여지도 퍼즐·채색 활동까지 체험하며 지도 속 과거의 세계를 탐험했던 현장을 찾았다.

대학주보

학점포기제 전 과목 대상 확대 “학점 관리 선택권 넓힌 것에 의미”

학점포기제 확대 타임라인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오는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가 확대되며 전공·교양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에 대해 학점포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건축학과 9학기, 의약학계열 11학기 이상)은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학생들의 학점 관리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신문은 이번 개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살펴봤다.

한 달 만의 변화 아닌 학생사회 지속 설득 결과

학사지원팀은 지난 7월 우리신문 취재 당시 학점 인플레이션과 학업 책임성 등을 이유로 학점포기제 전면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약 한 달 뒤 제도 확대를 확정했다.

이에 관해 양캠 총학생회(총학)는 총학 출범 직후부터 제도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총학 출범 직후부터 학점포기제 확대를 학교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 역시 “학교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며 “제도안을 먼저 준비한 뒤 학교와 계속 만나며 때로는 강하게 요구했고, 때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총학은 당초 ‘학점지우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기존 학점포기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했다.

학사 의제를 총괄하는 서울캠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사무국장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행정과 전산 부담이 적어 현실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학교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캠 총학과 학사지원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제도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포기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보고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후 학무부총장 등 학교 주요 보직자와도 면담하며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총학이 진행한 설문에는 재학생 3,822명이 참여했으며, 학자추는 특히 고학점 학생에게서

도 학점포기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가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 사무국장은 “단순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낮은 성적을 만회하려는 제도라는 학교의 우려와 다르게 4.0 이상의 고득점 학생도 제도 확대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역대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생 민원이 제도 확대를 결정짓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7학기 이상 학생 전 교과목 포기 가능 학생별로 상이한 필수과목 고려

총학은 당초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일반 학과 기준 7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의 포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확정됐다.

최 사무국장은 “5학기 안을 고수하기보다 타 대학 사례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7학기를 협상안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제도를 활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7학기 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

이공계 경쟁력의 빈틈 인력과 공간 인프라 부족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과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 간 인프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학교는 연구 역량을 뒷받침하는 환경 지표에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공계열의 인프라 부족 현장을 살펴봤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 THE 대학 아시아순위’ 지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종합 62.5점으로 42위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의 영향력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 품질’ 부문에서는 81.4점을 받았다.

이는 우리학교보다 종합순위가 높은 국내 6개 대학의 평균인 84.3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제캠 이은열 학무부총장은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첨단분야가 존재해 고품질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구 역량을 뒷받침하는 환경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우리학교는 교원당 학생 수 등을 평가하는 ‘교육 환경’과 논문 수·연구비 등을 반영하는 ‘연구 환경’ 지표에서 평균 48.3점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상위 대학 ▲서울대 77.0점 ▲연세대 63.3점 ▲고려대 58.1점 ▲성균관대 63.9점 ▲한양대 51.4점보다 낮은 수치다. 높은 연구 품질에 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교육·연구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낮은 대학원 진학률 인적 자원 부족

우리학교 이공계열 인프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연구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교수뿐 아니라 연구실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대학원 진학률이 경쟁 대학에 비해 낮아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제공한 2025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12%다. 이는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서울대 31.0% ▲고려대 21.7% ▲연세대 21.8% ▲서강대 16.6% ▲성균관대 17.8%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산학협력단 홍인기 단장은 “연구원이 확충돼 논문 수가 늘어나야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인적 인프라 기반 자체가 부족해 연구비 확보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연구 인력 확대를 위해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 교육지원팀 최문선 팀장은 “과정이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학부에서 석·박사과정까지 연계해 보다 유연하게 석박사 선택이 가능하며 이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무부총장은 “첨단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우수연구 및 자교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도 확대하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비만으로 꽉 차는 연구실 학생 수용 어려운 상황

인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연구자와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연구인력 확대에 앞서 이공계열 연구실 공간부족 문제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3면에 계속 →